



배우 문근영이 21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tvN 새 월화드라마 '유령을 잡아라'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4년 만의 드라마 ‘유령’이 심장을 뛰게 했어요”

tvN '유령을 잡아라' 문근영

“연기 하고 싶은 열망과 욕심 커 어려움도 있지만 재밌게 촬영 연기 변화 보여드리는 계기 될 것”

“4년 만에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연기를 너무 하고 싶은 열망과 욕심이 컸어요.”
‘마을-아차아라의 비밀’ (2015) 이후 4년 만에 tvN 월화극 ‘유령을 잡아라’를 통해 TV 드라마에 복귀하는 배우 문근영(32)은 이같이 밝혔다.

유령 역을 맡은 문근영은 21일 구로구 라마다서울신도림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오랜만에 연기하다 보니 어려움은 있지만 재밌게 촬영하고 있다. 내적인 모습, 연기적 면에서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본을 읽었을 때 심장을 뛰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며 “웃기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다”며 “이런 감정 변화가 여러 캐릭터와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구조가 재밌었다”고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밤 9시 30분 처음 선보일 ‘유령을 잡아라’는 지하철과 지하철 경찰대라는 소재로 주목 받는다. 안정적인 경찰 공무원 생활을 추구하는 고지석 반장 앞에 비밀을 간직한 열혈 신참 형사 유령이 나타나면서 좌충우돌하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다.

지하철 연쇄살인범을 수사하는 과정에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애환과 사연, 그리

고 러브라인을 더해 복합장르로 그려내겠다는 게 제작진 목표다.

기본적으로 수사극이다 보니 문근영은 액션도 제법 소화했다. 그는 “주 3일 정도 액션을 꾸준히 연습했다. 어렵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워낙 해보고 싶어서 재밌더라”고 웃었다.

고지석 역 김선호는 “내가 좋아하는 소소한 코믹연기를 할 수 있어 좋더라. 지루하지 않게, 위트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장면들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은 투박하고 낯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 작품의 색깔이 됐다. 우리가 노력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근영과 김선호 외에도 정유진, 기도훈, 조재운이 함께 지하철 범치 일망타진에 나선다.

“웃음이 많은 현장이었다”는 조재운은 유난히 드라마에서 경찰을 자주 연기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경찰처럼 생기지 않았나”고 웃으며 “그 동안에는 ‘지하세계’를 많이 그렸는데 ‘유령을 잡아라’에서는 남편이자 애배, 일반적인 경찰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작진은 이번 작품을 위해 2년간의 취재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본을 맡은 소원-이영주 작가는 “지하철 경찰은 평범한 회사원이나 취객 등으로 위장해 역사와 지하철 곳곳에 은밀히 잠복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며 “지하철 경찰대의 협조를 얻어 총 2년간 취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경찰대 사무실에서 그들이 일하는 방식과 수사 방법, 범주의 전대만상을 파악했다. 수사극의 리얼리티를 높이고 에피소드를 다양화하기 위해 프로파일러의 조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영화 ‘기생충’ 미국에서도 흥행

개봉 열흘만에

33개 극장서 21억원 수익

미국에서 확대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CJ엔터테인먼트와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기생충’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확대 개봉한 이후 20일까지 사흘간 총 124만1334달러(한화 약 14억 5782만원)를 벌어들이며 주말 박스오피스 11위에 올랐다.

현재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시카고,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지 33개 극장에서 상영 중인데, 주말 박스오피스 10위 ‘그것: 두 번째 이야기’가 1528개, 12위인 ‘책사’가 2332개 극장에서 상영한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성과다.

지난 11일 3개 극장에서 선 개봉 이후 지금까지 올린 총 수익은 182만1976달러(한화 약 21억 3972만원)이다. 선 개봉한 첫 주말엔 38만4216달러(한화 약 4억5000여만원)를 벌어들여 극장당 12만8072달러(한화 약 1억5000만원) 수익을 냈다.

이는 올해 미국 극장당 오픈링 수입 중



최고 기록이어서 주목된다. 현지 시간 지난 18일 개봉해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말레피센트 2’는 극장당 수입이 9499달러였다.

‘기생충’의 미국 배급사는 일부 극장에서 선보인 후 개봉관을 늘리는 플랫폼 릴리스 방식을 택했다. 성적이 좋아 상영관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선 개봉부터 현지 배급이 뜨거웠다. 선 개봉하자마자 뉴욕 극장에서는 표가 매진됐다. LA 타임스는 “‘기생충’은 유쾌함으로 시작해 파괴로 끝난다. 그러나 이 영화의 업적은 관객이 숨을 내쉬기 힘들 수도 있을 만큼 새 순간 살아있고 숨 쉰다는 것이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신동엽·이규한, MBN 리얼리티 예능서 호행

‘우다사’ 다음달 방송

개그맨 신동엽과 배우 이규한이 MBN 리얼리티 예능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하 ‘우다사’)에 함께 출연한다.

21일 ‘우다사’ 측에 따르면 이 예능은 여성 연예인들의 삶과 사랑을 그려내는 라이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친한 선배 사이이기도 한 신동엽과 이규한은 ‘우다사 하우스’에 모여 사는 여성 출연진과 어울리며 이들의 일과 사랑을 응원할 예정이다.



개그맨 신동엽(왼쪽)과 배우 이규한

‘우다사’는 다음 달 MBN에서 방송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45 수상한 정보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문재인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10 좋은 아침
10	00 문재인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문재인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30 살맛 나는 오늘
11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조선로코-녹두전(재)	00 기본 좋은 날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다큐 나는 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네오세도(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야생여정 40 KBS 국악대경연 대상선정연주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 공감(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201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키움·두산>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55 20주년 특집 100분 토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역사자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조선로코-녹두전		00 VIP:은밀한 시선 40 불타는 청춘 1~3부
11	35 UHD 슈퍼 40 특집 다큐 사회적 경제 내일을 연다	10 KBS특별기획 드라마 생일면지(재)	00 PD수첩 5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12	30 KBS 뉴스 40 KBS 결집 다큐멘터리(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KBS 드라마 스페셜 2019(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4:45 몰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똥똥똥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머털도사
08:30 띠띠뽀 띠띠뽀	15:10 로보카 폴리(재)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푸드 트립 스페인 -살의 향기 자연의 맛>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30 한국기행 <여행책에 없는 강원도 2부 고갯길 너머 행복이 산다>
09:00 출동! 슈퍼윙스	15:55 출동! 슈퍼윙스(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 호기심딱지(재)	22:45 건축탐구 - 집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곰(재)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0:30 한국기행	16:40 똥똥똥 유치원(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2일 (음 9월 24일 壬辰)

<p>36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응하는 것이 낫다. 48년생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성국이나, 60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 72년생 가려졌던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리라. 84년생 소신껏 처리하자. 96년생 독창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p> <p>행운의 숫자 : 06, 25</p>	<p>30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어떤 판국에서나 헤쳐 나갈 수 있다. 42년생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본다. 54년생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확실히 대응하라. 66년생 걸치려는 의미가 없으니 진정한 실속을 찾아라. 78년생 때가 되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90년생 하나씩 차분하게 정리해 나간다면 순조로워진다. 행운의 숫자 : 81, 72</p>
<p>37년생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49년생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것이다. 61년생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라. 73년생 당황하지 말고 다면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으리라. 85년생 전진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라. 97년생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p> <p>행운의 숫자 : 72, 32</p>	<p>31년생 가까이 다가오는 이가 보이니 인연이 박하다. 43년생 걸가시는 차치하고 핵심 위주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55년생 적나라하지 않으면 남매를 보리라. 67년생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79년생 찬스는 자신만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니 꼭 잡아라. 91년생 패자를 부르는 날이다.</p> <p>행운의 숫자 : 59, 91</p>
<p>38년생 안전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나, 50년생 중흥무진 할 것이니 빠뜨림이 많을 수밖에 없다. 62년생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보완해야 두어야 할 때. 74년생 맹점을 보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86년생 대세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98년생 중기는 풀었을 때 짜 아하고 숨은 필 때 걸려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0, 01</p>	<p>32년생 감당할 만 하리라. 44년생 내면에는 부실함이 많다. 56년생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68년생 잘 따져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0년생 읊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읊지가 되는 판세에 놓여 있다. 92년생 기회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니라.</p> <p>행운의 숫자 : 58, 68</p>
<p>39년생 호기심의 갈증을 더하는 비밀이 보인다. 51년생 전체적인 대안이 되어 출만한 해결책이 생길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63년생 예기치 못한 격정거리가 생길 것이다. 75년생 지금은 적기가 아니니 집착을 버리고 후일을 기약하는 편이 낫다. 87년생 추측만으로는 화를 자초하리라. 99년생 길한 기운이 모아지고 있으니 순조로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47</p>	<p>33년생 예상 했던 이로부터 소식이 오리라. 45년생 재물이 이 크게 열렸으니 잘 활용해 보자. 57년생 눈앞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멀리 내다보라. 69년생 선제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81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자리에서 길인을 만날 것이다. 93년생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서 부수적으로 얻는 바가 많다. 행운의 숫자 : 94, 23</p>
<p>40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격정거리가 생긴다. 52년생 자신감 못지않게 침착성도 절실히 요청 된다. 64년생 대의를 도모 하자. 76년생 실속은 없고 걸만 번지르르하게. 88년생 판이란 사정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00년생 밖으로 내 보내는 것보다 안으로 모아 들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6, 97</p>	<p>34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안정권에 들어서게 된다. 46년생 최선을 다 하면서 절실히 갈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58년생 유혹에 빠진다면 손재수에 휘말릴 수 있느니라. 70년생 용기보다는 지혜가 앞서야 할 판세이다. 82년생 대의를 도모하자. 94년생 실용적인 여건을 조성하자.</p> <p>행운의 숫자 : 69, 84</p>
<p>41년생 손재수가 비치니 제만사에 조심 해야겠다. 53년생 사소한 일에서부터 대사까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65년생 과신하다보면 소홀할 수밖에 없다. 77년생 주변의 상황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양태이다. 89년생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01년생 여태까지 보류해 왔던 일을 재개 할 수 있는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45, 80</p>	<p>35년생 승관화 된다면 순기능을 하리라. 47년생 경제성부터 헤아리자. 59년생 열핏 보아도 표가 나게 되어 있다. 71년생 동기가 절실해야 알차다. 억지로는 되지 않는 것이니 무리할 필요는 없다. 83년생 새로운 것들을 접하다 보면 전망이 밝아진다. 95년생 서두르다면 상대로부터 의혹을 살 수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95, 11</p>